

마이크로 토론(Micro Debate)을 활용한 CEDA 방식 토론 교육*

김평원**

<차 례>

- I. 서론
- II. CEDA 방식 토론의 교육적 활용
- III. 마이크로 토론 교수·학습 모형
- IV. 마이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 교육의 효과
- V. 결론

I. 서론

토론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수단인 동시에 교수·학습 방법론으로 거듭나고 있다. 다양한 교과에서 토론을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debate)을 강조하는 까닭은 토론이 비판적 사고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토론은 주장과 반박을 주고받는 일반적인 방식이 있는가 하면, 상대의 주장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미국 교차조사 토론학회(CEDA : 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방식의 토

* 이 연구는 2008년 3월 ‘마이크로 토론’이라는 방법론을 구안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서 지원한 교과교실 지원 예산을 통해 서울 M고등학교에 토론 전용 교실을 구축한 후 (2009년 2월), 2009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현장 적용을 거친 후 나온 결과물이다.

** 서울대학교

론(이하 CEDA 방식 토론)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은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한 후 이를 토대로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설득하는 것이다. CEDA 방식 토론은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가 교차하면서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서로 타협하면서 의미를 창조해 가는 상호 교섭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고 준비해온 주장만 되풀이하면 결국 패할 수밖에 없다.¹⁾

CEDA 방식 토론은 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소요 시간이 70분을 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CEDA 방식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절차를 밟아가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논리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교사들이 CEDA 방식 토론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CEDA 방식 토론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각 교과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에게 토론의 구성 원리와 절차를 습득하게 하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모형이 요구된다. 즉 CEDA 방식 토론과 같이 절차가 복잡한 경우는 ‘토론을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debate)’에 앞서 우선 ‘토론에 대한 학습(learning about debate)’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토론(Micro Debate)’이라는 방법론을 구안하여 1년간 대학의 국어 화법 수업과 고등학교의 화법 수업 현장에 적용하면서 그 효과성을 점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부 단계를 수정하면서 최종 모형을 도출하였다.

1) CEDA 방식 토론은 ‘상호 질의 토론’ 또는 ‘교차 조사 토론’ 등으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자마다 용어가 달라 오히려 혼란을 일으킨다. 미국에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외래어 ‘세다(CEDA)’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부에서는 ‘CEDA 토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교차조사학회 토론’이라는 의미가 되므로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CEDA 방식 토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CEDA 방식 토론은 적극적인 듣기와 논쟁적 말하기 능력을 함께 강조하기 때문에 토론 대화는 물론 교육 토론의 전형적인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II. CEDA 방식 토론의 교육적 활용

1. CEDA 방식 토론의 구조

CEDA 방식 토론은 긍정 측과 부정 측 각각 두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복식 토론으로서 각 토론자마다 입론, 교차 질문, 논박의 기회가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관전하고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두 12단계로 진행된다.²⁾ 미국 토론 대회에 적용되는 각 단계별 제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 1〉 CEDA 방식 토론의 단계별 제한 시간(미국)

단 계	제한 시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①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	4-5분	8분	10분
② 반대 측 제2토론자의 교차조사	2분	3분	3분
③ 반대 측 제1토론자의 입론	4-5분	8분	10분
④ 찬성 측 제1토론자의 교차조사	2분	3분	3분
⑤ 찬성 측 제2토론자의 입론	4-5분	8분	10분
⑥ 반대 측 제1토론자의 교차조사	2분	3분	3분
⑦ 반대 측 제2토론자의 입론	4-5분	8분	10분
⑧ 찬성 측 제2토론자의 교차조사	2분	3분	3분
⑨ 반대 측 제1토론자의 반박	2분	5분	5분
⑩ 찬성 측 제1토론자의 반박	2분	5분	5분
⑪ 반대 측 제2토론자의 반박	2분	5분	5분
⑫ 찬성 측 제2토론자의 반박	2분	5분	5분

CEDA 방식 토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리 준비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리 준비한 내용을 말하는 경우는 찬성 측 첫 번

2) 단식 토론은 1 : 1로 진행이 되는 토론이고, 복식 토론은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2 : 2, 3 : 3 등으로 진행되는 토론이다. CEDA 방식 토론은 입론과 교차 조사를 주고받으면서 역동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단식 토론보다는 복식 토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째 토론자의 입론뿐이며 그 이후 모든 단계는 상대팀의 교차 조사, 입론, 반박 등을 분석하여 준비한 내용을 변형시켜 말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미리 준비한 내용을 말하는 경우는 토론의 단계를 거듭할수록 논의가 구체적으로 좁혀지는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상대측에 논파(論破) 당하게 된다.

찬성 측의 입론은 용어의 정의, 논제의 배경, 논제의 현상과 문제에 관한 분석을 명시하고 논거를 들어 주장해야하며 도표와 같은 참고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교차조사에서는 상대측이 말한 내용 중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논거가 부적절한 경우, 인과관계나 추론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부각시키기 위해 질문하고 대답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반대 측의 입론은 찬성 측 토론자의 입론 및 교차조사 내용을 고려하여, 찬성 측이 제시한 핵심 쟁점 중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을 명확히 한 후 합당한 논거를 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는 과정이다. 반박은 두 번의 입론과 교차 조사를 통해 분석한 주고받은 후 숙의 시간을 통해 상대측의 주장에 담긴 허점을 찾아 공격하고, 자신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를 요약하여 말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CEDA 방식 토론은 상대방의 입론을 듣고 질문하는 절차를 두 번 주고받은 후, 숙의 시간을 거쳐 반박을 주고받는 간단한 구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발언 순서를 찬성 측에서 시작해서 찬성 측으로 끝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순서가 어긋나게 되고, 팀 내 토론자의 순서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은 매우 복잡하게 느낄 수 있다.³⁾ 서울 고등학생 토론 대회 예선의 경우 토론을 진행하는 교사마저 순서를 혼동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흔할 정도로 CEDA 방식 토론은 그 진행 절차가 복잡하며 학생들은 CEDA 방식 토론

3) 토론에서는 마지막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논박하는 토론자의 발언은 더 이상 상대측에서 논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CEDA 방식 토론에서는 주장의 정당성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 찬성 측의 부담을 고려하여 찬성 측에게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주게 된다. 이는 변화를 주장하는 찬성 측이 반대 측에 비해 다소 불리하기 때문이며, 다소 유리한 최종 발언권을 찬성 측에 줌으로써 양 측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에 익숙해지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⁴⁾



〈그림 1〉 CEDA 방식 토론의 구조

현실적으로 CEDA 방식 토론의 절차를 익히는 일은 교사의 설명과 학생의 연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림 1>은 CEDA 방식 토론의 절차를 정리한 ‘요약자(the summarizers)’로서 찬성과 반대 측 각 토론자의 순서와 토론의 단계 및 세부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⁵⁾

2. 교실 토론

교실 토론(class debate)은 다양한 교과와 교수·학습 방법론으로서의 의

-
- 4)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토론 교육 역량 강화 및 올바른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지구별 예선 대회를 거쳐 본선대회를 치루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08 : 1-6).
 - 5) 요약자(the summarizers)란 학습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복습하는 데 사용하는 전략으로서 학습한 개개의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요점적 진술을 제공하고 전형적이고 쉽게 기억될 수 있는 표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1>은 CEDA 방식 토론 절차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만든 요약자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했던 것이다.

미와 토론을 훈련하는 약식 토론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⁶⁾ 각 교과 의 지식을 종합하기 위해 토론을 활용하는 토론식 수업은 전자에 해당하고, 국어 시간(화법 시간)에 공부하는 약식 토론은 후자에 해당한다.⁷⁾ 특히 후자는 듣기와 말하기 기능을 동시에 활용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⁸⁾ 토론 대회가 정착된 미국에서는 교실 토론을 토론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규칙과 시간을 변형한 경우를 일컫는다(이정옥, 2008 : 143).⁹⁾

교실 토론은 교실의 상황, 수업의 특성, 학생들의 능력과 인원수를 고려하여 토론의 형식을 조정하기 때문에 수많은 형식이 가능하다. 교실 토론은 사회자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참가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발언권을 보장해 준다는 대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에게 동일한 발언 기회와 시간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교실 토론은 정식 토론으로 발전하기 위해 훈련하는 토론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진행된다(이정옥, 2008 : 144).

〈표 2〉 교실 토론의 절차

단 계	학 생	교 사	비 고
1단계	논제 파악 자료조사	논제 제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교사의 지도와 팀원들의 협동 학습
2단계	논점 분석	면담	팀별로 면담 지도

- 6) 학자에 따라 교실 토론을 ‘교육 토론’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7) 현장에서는 논리적인 글쓰기인 논술과 마찬가지로 토론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종합하는 방법론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른바 ‘토론식 수업’이라는 말은 여기서 기인한 것으로 ‘CEDA 방식 토론을 활용한 수업’이라는 측면보다는 논리적인 말하기를 강조한 것이다.
- 8) 진은주(2003)에서는 토론 평가를 듣기와 말하기 기능이 상호 작용함은 물론 여러 학습자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목표, 내용, 방법,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 9) 초기 미국의 토론 교육은 토론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으로 시작하였다. 일본 역시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class debate를 도입하여 일본에 맞게 변형하였는데 교실 토론, 수업 토론, 학교 토론 등으로 성격에 맞게 다양한 이름으로 번역되다가 1993년 교실 토론 원년이 선포된 후 교실 토론이란 명칭으로 통일되었다(이정옥, 2008 : 143).

단 계	학 생	교 사	비 고
3단계	토론 개요서 작성	토론 개요서 작성 설명	팀원들의 협동 학습
4단계	토론 실행	진행자	청중은 토론의 결과를 평가하고, 교사는 토론에 대해 논평
5단계	논술문 작성	글쓰기 개요 작성 설명	수업 시간은 개요 작성 논술 작성은 과제

CEDA 방식 토론을 변형한 교실 토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민족사 관고등학교 토론 캠프에서 사용하는 대회 토론 모형이 있다. 이 교실 토론 모형은 중학생 수준에 맞게 토론자 참여자를 확대하고 토론 시간을 축소한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CEDA 방식 토론을 교육적으로 변형하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1차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한 사람당 발언 기회가 한번밖에 없으며 전략적인 반론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이선영, 2010 : 253).

결국 CEDA 방식 토론 교육은 단계를 축소하거나 진행 방식을 변형하는 것보다는 다소 복잡하더라도 그 절차를 그대로 밟아 진행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마이크로 토론 교수·학습 모형

1. 마이크로 토론의 개념과 토론 기반 학습의 특성

1) 마이크로 토론의 개념

마이크로 토론(Micro debate)은 학생들에게 토론의 실행과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토론 교육 방법으로 실제 토론 대회 상황을 압축한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한 후 수정·보완하여 다시 토론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1차시 수업을 10분 이내로 압축하여 전체 수업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마이크로 티칭(micro teaching)과 유사한 개념이다.¹⁰⁾

마이크로 토론은 장소, 시간, 관전 인원 등 모든 면에서 실제 토론 대회를 축소하면서도 실제 토론을 한 것과 동일한 경험을 갖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실제 토론 대회를 축소해서 실제 토론과 동일한 경험을 보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다.

특히 내적 변인 측면에서는 내용의 깊이가 문제시 되며, 외적 변인 측면에서는 실제 토론 대회 현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임장성(臨場性)이 문제시 된다. 전자의 경우는 마이크로 토론의 특성상 핵심적인 내용만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후자는 마이크로 티칭을 위한 수업행동분석실과 마찬가지로 토론 전용 교실과 같은 시설이 보장된다면 실제 토론을 축소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임장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¹¹⁾

10) 마이크로 티칭(micro-teaching)은 실제 상황(시간, 교수 내용, 교수 방법, 학습자수, 교실의 크기)보다 축소된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이 수업과정을 녹화한 후,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정하고 보완하여 다시 가르치는 순환적 과정을 통하여 교수 기술을 개선하거나 획득하도록 돕는 교수·학습 개선 방법을 의미한다.

11) 최근 교원 임용시험에서 마이크로 티칭 형태의 수업 실기 평가가 대폭 강화되고, 각 대학에서는 수업 행동 분석실을 설치하여 수업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예비 교사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수업 평가는 교사 양성 교육 기관에서 습득한 교수·학습 모형과 방법에 대한 지식을 통합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능력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교사 양성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업 행동 분석실을 활용하는 정도를 교원 양성 기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여기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선 고등학교 현장도 교과 교실체의 확대 실시 정책으로 토론 전용 교실을 설치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필자는 서울 M고등학교에 토론 전용 교실을 구축한 후 마이크로 토론을 1년간 실시하였다.



〈그림 2〉 토론전용 교실을 처음 도입한 M고등학교 토론 교실 전경

2) 마이크로 토론 기반 학습의 특성

마이크로 토론 기반 학습(MDBL : Micro debate Based Learning)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교실 토론과 차이가 있다. 첫째, 토론 상황의 ‘변형’이 아니라 ‘축소’라는 점이다. 마이크로 토론은 교실 토론(class debate)과 같이 실제 토론을 교실 상황에 맞게 변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를 그대로 포함하되 그 규모를 축소한 것이다.

둘째, 역할극(role play)과 시뮬레이션기법(Simulation)을 통합했다는 점이다. 마이크로 토론은 모범적인 토론 대본을 보면서 토론자 역할을 흉내 내고 연기하는 역할극에서, 대본이 없는 시뮬레이션 단계로 발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¹²⁾

셋째, ‘실제 토론’이 아니라 ‘토론 시뮬레이션(Debate Simulation Instruction Model)’이라는 점이다. 학생들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교실 토론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라 비교적 편안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법과 절차를 연습하게 된다.¹³⁾

12)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실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고 역할극(role play)은 특정한 상황을 미리 만들어서 그 인물을 직접 연기하면서 인물을 이해하는 것이다. 역할극은 실제 상황이 아닌 미리 설정한 상황을 연기하는데 비해서 시뮬레이션은 실제 상황을 축소하여 경험하게 된다. 역할극은 토론자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정적적 측면이 강하며 시뮬레이션은 상황을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인지적인 성격이 강하다.

13) 원래 물리학이나 공학에서 개발된 것이지만 최근에 경영관리 또는 교육활동에도 폭넓게

2. 마이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

1) 마이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 학습의 설계

마이크로 토론의 교육 내용은 크게 내용 측면과 활동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다시 ‘개념’, ‘원리’, ‘절차’로 내용 측면을 세분화하고, 활동 측면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위계화하면 다음과 같은 6개의 영역을 상정할 수 있다.¹⁴⁾

〈표 3〉 마이크로 토론의 ‘내용×활동’ 설계

내용 \ 활동	개념(what)	원리(why)	절차(how)
이해하기	①	②	③
적용하기	④	⑤	⑥

마이크로 토론 교육의 목표는 실제 토론의 절차와 원리를 축소하여 반복 학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제 토론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축소하려는 대상인 실제 토론의 개념과 원리 절차를 이해한 후(영역 ①, ②, ③), 이를 마이크로 토론으로 축소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반복함으로써(영역 ④, ⑤, ⑥) 경험적 지식으로 체화(體化)시켜야 한다.

마이크로 토론 기반 학습법을 CEDA 방식 토론에 적용한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응용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학습법은 1970년대 초부터 미국의 교육계와 산업계에서 시작하여 경영관리, 교사 교육, 성인교육 등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교육방법이다.

14) 이는 Merrill M.D.의 ‘내용요소제시이론(CDT)’과 유사한 방식이다. 내용요소제시이론(CDT)은 하나의 개념이나 원리와 같은 아이디어를 교육하는 미시적 교수설계이론으로 ‘내용×수행’으로 12개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그 중 10개의 학습 범주를 분석하고 있다(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1996 : 176~180).

〈표 4〉 마이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의 '내용×활동' 설계

활동 × 내용		내 용		
		개념(what)	원리(why)	절차(how)
활동	이해하기	CEDA 방식 토론의 특징을 전통식 논박 토론과 비교하여 이해하기.	CEDA 방식 토론에서 찬성 측 과 반대 측의 순서를 정한 원리를 이해하기.	CEDA 방식 토론의 진행 절차 12단계를 이해하기.
	적용하기	마이크로 토론을 CEDA 방식 토론에 적용하기.	CEDA 방식 토론의 단계별 시간을 1분 이내로 조정하여 마이크로 토론으로 축소하기.	마이크로 CEDA 방식 토론에 직접 참가하거나 관전하면서 동료를 평가하기.
		역할극을 통해 CEDA 방식 토론에 참여하는 토론자를 이해하기.		

2) 마이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의 절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마이크로 토론은 ‘토론을 통한 학습’뿐만 아니라 ‘토론에 대한 학습(learning about debate)’을 강조한다. 마이크로 토론을 활용한 CEDA 방식 토론 교수·학습 모형은 다음과 같이 6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표 5〉 마이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 학습 절차

단 계	주요 활동	내 용
1단계	설명	요약자를 활용하여 CEDA 방식 토론의 원리와 절차를 설명한 후 이를 축소한 마이크로 토론에 대해 학습한다.
2단계	모델링	미리 제작한 마이크로 토론 시범 동영상을 시청한다.
3단계	역할극형 마이크로 토론	주어진 시범 동영상 대본을 숙지하여 토론자 역할을 연기한다.
4단계	토론 준비 단계	토론 주제를 숙지한 후 마이크로 토론을 준비한다.
5단계	시뮬레이션형 마이크로 토론	마이크로 토론을 실시하고 녹화한다.
6단계	피드백	교사는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면서 강평을 한다. 교사는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하여 논리 측면에 대한 분석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생은 토론 평가표를 활용하여 총체적 평가를 체험한다.

마이크로 CEDA 방식 토론의 첫 번째 단계는 CEDA 방식 토론과 이를 축소한 마이크로 토론에 대한 이론 학습이다. 교사는 CEDA 방식 토론의 개념, 원리, 절차를 설명한 후 이를 마이크로 토론으로 축소하여 훈련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림 3〉 1단계(설명 단계)와 2단계(모델링 단계) 수업 모습

두 번째 단계는 마이크로 CEDA 방식 토론의 모델을 모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이해한 것을 확인하면서 적용해보는 것으로 미리 제작된 시범 동영상 보면서 개념, 원리, 절차를 확인하게 된다. 설명 단계와 모델링 단계를 합쳐 보통 1차시를 배당하면 되지만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차시를 조정할 수 있다.¹⁵⁾

세 번째 단계는 역할극형 마이크로 토론 단계로서 학습자는 두 번째 단계에서 시청한 시범 동영상의 대본을 받아 숙지한 후 토론자의 역할을 연기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흉내 내기가 아니라 토론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정의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¹⁶⁾ 학생들은 직접 토론하는 사람을 연기하면서 관찰자 입장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느낌이나 긴장감 등을 간접

15) 시범 동영상은 학생들을 별도로 연습시켜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 대학생들이나 성인들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16) 연구자는 대학 국어화법 수업과 고등학교 화법 수업에서 영화 ‘그레이트 디베이터스(The Great Debaters)’를 활용해 토론하는 사람들을 심정을 이해하는 정의적 측면의 교육을 계속해오고 있다. 흉인 토론팀이 백인 토론팀을 대상으로 승리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를 보면서 학생들은 토론자의 심정을 간접 체험하게 된다.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역할극형 마이크로 토론 방법이 영화를 활용한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체험하게 된다. 이처럼 타인의 말하기를 관찰하는 수준에서 자신이 직접 말하는 수준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타자를 이해하는 활동이 곧 주체를 이해하는 활동임을 깨닫게 된다. 대본을 보고 연기하도록 할 경우 한 팀의 토론 역할극이 8분 내외로 끝나기 때문에 1차시에 보통 5~6팀의 역할극형 마이크로 토론을 운영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이 세 번째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려면 2차시를 배당해야 한다.¹⁷⁾

네 번째 단계는 토론 준비 단계로서 학습자는 역할극 대본을 참조하여 토론 주제에 대해 조사하여 토론 계획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미 역할극을 통해 접해본 주제이기 때문에 보통 1차시를 배당하면 되지만,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을 모두 준비하고 추첨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2차시를 배당해야 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시뮬레이션형 마이크로 토론 단계로서 학습자는 CEDA 방식 토론의 모든 절차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체험하거나 다른 학습자의 토론 과정을 평가하게 된다. 한 팀의 토론이 10분 내외로 끝나기 때문에 교사의 피드백을 포함하여 1차시에 보통 3팀의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이 다섯 번째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려면 3차시를 배당해야 한다.



(그림 4) 3단계(역할극)와 5단계(시뮬레이션) 마이크로 토론 모습

17) 역할극은 연극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경현(2009)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출, 배우, 보조, 홍보, 매체 제작 팀을 구성하여 토론 연극을 제작하는 토론극화수업을 소개한 바 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피드백 단계로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면서 총체적인 평가를 하거나 체크 리스트법을 활용하여 논리 측면에 대한 분석적 피드백을 제공한다.¹⁸⁾ 학생들은 분석적 평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토론 평가표를 활용하여 총체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그림 5>를 보면 학생들에게 제공한 토론 평가표로서 토론의 절차를 정리한 요약자와 단계별 토론자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마이크로 토론을 관전하면서 토론의 절차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 평가표

순 서	찬성팀		반대팀		평가				
	1	2	1	2	① 매우 좋음 ② 부족함	③ 좋음 ④ 매우 부족함	⑤ 보통		
1	입론				찬성팀	⑤ ④ ③ ② ①			
2		응답		질의	반대팀	⑤ ④ ③ ② ①			
					찬성팀	⑤ ④ ③ ② ①			
3			입론		반대팀	⑤ ④ ③ ② ①			
4	질의			응답	찬성팀	⑤ ④ ③ ② ①			
					반대팀	⑤ ④ ③ ② ①			
5		입론			찬성팀	⑤ ④ ③ ② ①			
6			질의		반대팀	⑤ ④ ③ ② ①			
		응답			찬성팀	⑤ ④ ③ ② ①			
7				입론	반대팀	⑤ ④ ③ ② ①			
8			질의		찬성팀	⑤ ④ ③ ② ①			
				응답	반대팀	⑤ ④ ③ ② ①			
9			반박		찬성팀	⑤ ④ ③ ② ①			
10	반박				반대팀	⑤ ④ ③ ② ①			
11				반박	찬성팀	⑤ ④ ③ ② ①			
					반대팀	⑤ ④ ③ ② ①			
12		반박			찬성팀	⑤ ④ ③ ② ①			
점수 합계	찬성팀		반대팀						
	점				점				

<그림 5> 토론 단계별 총체적 평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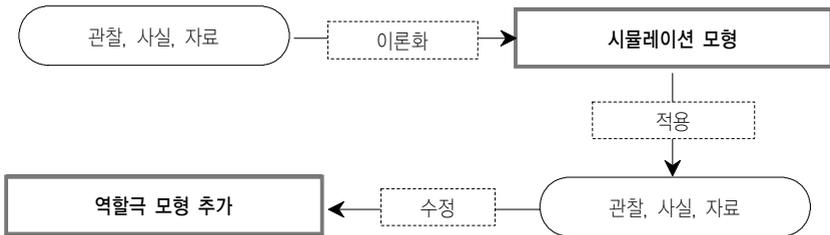
18) 비디오 녹화 학습은 학습자의 수행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해 둔 뒤 이를 재생해 보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비디오 녹화 학습은 이미 사라진 텍스트를 다시 재현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화법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수·학습에 활용되고 있다. 이미 대학의 말하기 강의와 사교육 기관의 스피치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비디오 녹화 학습을 통한 ‘반성적 말하기 평가’는 보편화되어 있다.

IV. 마이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 교육의 효과

1. 모형의 수립과 수정

교수·학습 모형은 현장 연구 차원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귀납적으로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모형을 설계한 후 실제 현장에 적용하면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는 양자의 성격을 다 지니고 있다. 2008년 3월 구안한 마이크로 CEDA 방식 토론 학습 모형은 시뮬레이션 모형만을 포함하였는데, t-검정(paired sample t-test) 결과 표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역할극을 포함하는 모형으로 수정하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마이크로 CEDA 방식 토론 학습 모형은 관찰, 사실, 자료로부터 아이디어를 생성한 후 모형을 구축하는 연역적 추리 과정과 이를 다시 관찰, 사실, 자료에 적용하여 최적의 모형으로 수정하는 귀납적 추리 과정을 거쳐 이론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그림 7〉 최종 모형의 수립 과정

2. 검증 가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마이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 학습 모형은 2008년 최초 구안한 모형을 서울 S대학의 국어화법 강의와 서울 M고등학교의 2학년 국어 수업 시간에 적용하면서 모형을 수정하였으며, 2009년 M고등학교에 토론 전용교실을 구축한 후 1년간 2학년 4개 학급 국어 수업에 적용하였다. 마이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 학습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세운 가설은 다음과 같다.

영가설 : 마이크로 CEDA 방식 토론 수업을 실시한 집단과 일반적인 CEDA 방식 토론 수업(교실 토론)을 한 집단은 토론 능력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실험가설 : 마이크로 CEDA 방식 토론 수업을 실시한 집단과 일반적인 CEDA 방식 토론 수업(교실 토론)을 한 집단은 토론 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을 검증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토론 능력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이다. 토론 대회는 전문가 집단의 분석적 평가 점수를 통합하여 팀별로 승패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팀별로 부과된 심사위원들의 점수 합이 곧 토론 능력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토론 교육 모형을 평가할 때는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팀별 능력이 아니라 토론자 개인의 말하기 능력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로 구분하는 5점 척도의 총체적 평가(holistic test)로 계량화하여 추정하였다.

3. 검증 설계

마이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 학습 모형의 효과는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통해 검증할 수 있

다. M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열은 상경 과정 4개 학급, 어문 과정 2개 학급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에서 어문 계열 2개 학급은 상당수의 예체능계열 학생들과 운동선수들을 포함하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고 상경 과정 4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두 개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 모두 CEDA 방식 토론에 대한 강의식 수업과 실제 CEDA 토론을 실습하는 교실 토론을 실시한 후 실제 토론 능력을 평가하는 사전 측정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은 16개의 토론팀으로 편성되었으며 측정은 방과 후에 토론팀별로 하였다.

한 달 뒤 통제 집단 2개 학급은 사전 측정 전에 실시했던 것과 동일하게 교실 토론을 하였으며, 실험 집단 2개 학급은 마이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 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실습하였다.

〈표 6〉 검증 설계

집단	사전 측정	처치	사후 측정
통제 집단 (16팀 64명)	O1	교실 토론 프로그램	O2
실험 집단 (16팀 63명) ¹⁹⁾	O3	마이크로 CEDA 방식 토론 프로그램	O4

실험 설계의 실험 효과(E)는 실험집단과 대조 집단의 사전 측정치와 사후 측정치의 차이를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후 t-검정(paired sample t-test)을 통해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²⁰⁾ 평가자 개인의 내적 일관성

19) 실험 집단 중 한 팀에서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가 반박을 포기하여 분석 단위에서 제외하였다.

20) 실험 효과(E)는 실험집단의 사후 측정과 사전 측정의 차이를 통제집단의 사후 측정과 사전 측정의 차이와 비교함으로써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토론을 실시한 집단과 실제 토론을 실시한 집단의 효과 크기는 $E=(O4-O3)-(O2-O1)$ 이다. 하지만 이는 그 차이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흔히 각 집단의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그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t-검정이나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한다. 공분산분석은 종속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초기 상태)를 밝히고 이를 제거한 상태에서 집단 비교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험단위를 무작위로 할당하지 못

을 유지하기 위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에 대한 척도를 조정하는 토론 평가자 훈련을 포함한 검증 절차는 <표 7>과 같다.

<표 7> 검증 절차

단 계	내 용
1	토론 평가자 훈련 CEDA 방식 토론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교사 3명을 대상으로 평가자 훈련을 실시한다.
2	교실 토론 CEDA 방식 토론에 대해 설명한 후 실제 토론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준 후 <표 2>와 같은 절차의 교실 토론을 실시함.
3	사전 측정 토론팀을 구성하여 동영상으로 열람한 토론 주제와 동일한 CEDA 방식 토론을 한다. 평가자는 학생 개인별 토론 능력을 5점 척도로 계량화 하고 세 평가자의 평균점을 점수로 반영한다.
4	실험 처치 통제 집단은 사전 측정 전에 했던 교실 토론 수업을 반복하고,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 수업을 실시한다.
5	사후 측정 실험 처치 후 두 달이 지난 후 다시 CEDA 방식 토론을 실시한다. 평가자는 학생 개인별 토론 능력을 5점 척도로 계량화 하고 세 평가자의 평균점을 점수로 반영한다.
6	결과 비교 두 집단의 사전 사후 측정 결과를 공분산분석하여 사전 점수가 종속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인지를 확인한다.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사전 사후 변화를 비교한다.

4. 검증 결과

처치 후 바로 t-검정을 하지 않고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교실 토론을 실시한 후 사전 검사를 실시한 까닭은 처치 전 집단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공분산분석을 위해서이다.

공분산분석 결과 공변량(covariance)에 해당하는 집단별 ‘사전 검사’의 차이가 종속변수인 사후 검사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4$). 이는 학생들이 이미 체득하고 있는 토론 능력의 차이가 처치 효과보다 크지 않아 집단 비교가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CEDA 방식 토론을 처음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8〉 공분산 분석 결과

소스	제III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수정 모형	59.14172	2	29.57086	51.56	.000
절편	50.21818	1	50.21818	87.56	.000
사전검사	58.669	1	58.669	102.29	.000
집단	2.647982	1	2.647982	4.62	.034
오차	71.11849	124	0.573536		
합계	1570.902	127			
수정 합계	130.2602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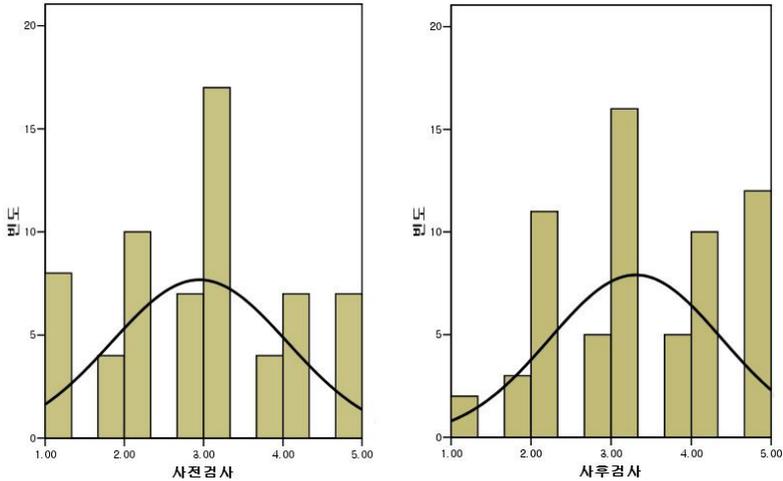
사전-사후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t-검정(paired sample t-test) 결과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	p
통제 집단	사전 검사	64	2.9059	1.04658	-1.761	.083
	사후 검사	64	3.0728	1.04002		
실험 집단	사전 검사	63	2.6663	1.17187	-6.814	.000
	사후 검사	63	3.4295	0.95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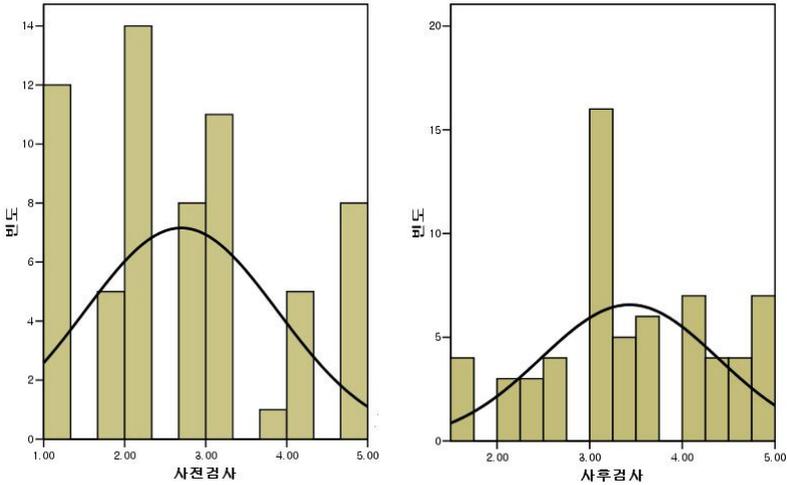
실제 토론을 변형한 기존의 교실 토론을 실시한 통제 집단의 t-검정 결과를 보면 유의수준 5%($\alpha=0.05$)에서 p-값이 0.083으로 나타나 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즉 CEDA 방식 토론을 변형한 교실 토론은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

다. <그림 6>은 이러한 결과를 가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통제 집단의 사전 검사 분포가 사후 검사 분포에서는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였으나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6> 대조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반면 마이크로 토론을 실시한 실험 집단의 t-검정 결과는 유의수준 5%($\alpha=0.05$)에서 p-값이 매우 작아 영가설을 기각한 후 실험 가설을 채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p\text{-value}=0.000$). 즉 마이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 학습 모형의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것이다. <그림 7>을 보면 실험 집단의 사전 검사 분포가 사후 검사 분포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보통 이하 수준의 성취도를 보였던 학생들이 보통 수준으로 이동한 점이 돋보이는데 이를 통해 CEDA 방식 토론은 학습자들이 그 절차를 숙지하고 체화하는 정도가 토론 능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실험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V. 결론

CEDA 방식 토론은 토론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 기존의 반박형 토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완성한 형식이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질문하면서 실시간으로 반박할 논리를 만들어가는 CEDA 방식 토론의 역동적인 진행 과정은 듣기와 말하기가 통합된 논리 게임이라는 점에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사회과는 물론 국어교육 특히 화법 교육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아무리 좋은 도구도 그 사용 방법이 복잡하면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CEDA 방식 토론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에게 토론 진행 방법을 숙지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흠이다. 기존의 교실 토론은 CEDA 방식 토론의 단계를 줄이거나 변형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학생 입장에서 느끼는 CEDA 방식 토론의 복잡함은 단지 몇 단계를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토론 문화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CEDA 방식 토론 형식이 완성된 미국과는 달리 CEDA 방식 토론을 확산하면서 토론 문화의 발달을 도모해야하는 한국적 상황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마이크로 토론 방식은 우리 실정에 맞는 과도기적인 토론 교육 모형으로 토론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는 형식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마이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 학습 모형은 실제 CEDA 방식 토론의 구조를 무너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축소하여 역할극과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단계를 밟아 실제 토론의 구조를 학습하도록 구안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CEDA 방식 토론을 변형한 교실 토론이 아니라 실제 CEDA 방식 토론을 축소해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마이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 학습 모형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보통 교과인 ‘회법과 작문’, 과학과 전문 교과인 ‘과제 연구’나 ‘워크숍’은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¹⁾

마이크로 토론 방식은 CEDA 방식 토론 이외에 논박형 토론을 비롯한 다른 토론 유형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21)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의 일부가 국가 차원에서 단위 학교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제 단위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토론 활동을 운영하려는 교육공동체의 도전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본 논문은 2010. 10. 31. 투고되었으며, 2010. 11. 5. 심사가 시작되어 2010. 11.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평원(2010), “말하기 평가의 분석 모형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 민병곤(2004), “논증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 서울특별시 교육청(2008), 『제1회 서울 고등학생 토론대회 교사 연수 자료』, 서울교육 2008-61호.
-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2008), 『(세상을 바꾸는) 발표와 토론』,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 이경현(2009), “주제중심 토론 극화 수업의 모형 정립”, 『청람어문교육』 39집, 135-172.
- 이두원(2008), “한국 대학생의 디베이트 스타일에 대한 내용 분석 : CEDA 포맷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6권 1호, 79-100.
- 이선영(2010), “토론 교육을 위한 논제 선정에 대한 소고”, 『청람어문교육』 41집, 241-167.
- 이정옥(2008), 『토론의 전략』, 문학과 지성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1996),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과학사.
- 전은주(2003), “말하기·듣기 영역 수행평가의 방법 : 토론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어문학교육』 27 : 39-65, 한국어문교육학회.
- 조은순(2005), “인터넷 CEDA 토론 모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300-309.

<초록>

마이크로 토론(Micro Debate)을 활용한 CEDA 방식 토론 교육

김평원

CEDA 방식 토론은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가 교차하면서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서로 타협하면서 의미를 창조해 가는 상호 교섭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CEDA 방식 토론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각 교과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에게 토론의 구성 원리와 절차를 습득하게 하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모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마이크로 토론 방식은 우리 실정에 맞는 과도기적인 토론 교육 모형으로 토론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는 형식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마이크로 토론 기반 CEDA 방식 토론 학습 모형은 실제 CEDA 방식 토론의 구조를 무너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축소하여 역할극과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단계를 밟아 실제 토론의 구조를 학습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CEDA 방식 토론을 교육적으로 재구성한 교실 토론이 아니라 실제 CEDA 방식 토론을 축소해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는 데 있다.

【핵심어】 마이크로 토론, 마이크로 토론 기반 학습, CEDA 방식 토론, 토론에 대한 학습

<Abstract>

Debate Education of CEDA Method Using
Micro Debate Based Learning(MDBL)

Kim, Pyoung-won

In the CEDA(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debating model, the students are likely to feel that the method is too complicated for them. It takes more than 70 minute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use the method in classroom. More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odel for students to learn the CEDA debating model procedure is required so that the CEDA debating model can be put to use in each class. In other words, Learning about Debate is a prerequisite for Learning through Debate.

This study presented Micro Debate Based Learning Micro for CEDA debating model as a learning method and verified its educational effect.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showed a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that did not have Micro Debate at all and the group that did once.

【Key words】 Micro Debate, MDBL(Micro Debate Based Learning), debating model, learning about debate

【부록】

마이크로 CEDA 방식 토론 대본*



* 실제 마이크로 CEDA 방식 토론을 녹화하여 대본으로 옮긴 것이다.

①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토론 주제인 욕의 공론화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욕의 공론화는 욕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욕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KBS 스페셜 <10대 욕에 중독되다>라는 프로그램에 따르면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한 설문에서 96.6%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욕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욕이 많이 쓰이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욕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나 논의가 없었습니다. 단지 ‘욕은 나쁘다’, ‘욕은 쓰지 말아야 한다’ 등과 같은 인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욕사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욕의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②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조사

반대 측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의 96.6%가 욕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빈도가 어떻게 조사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찬성 측 :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빈도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대신 중학교의 경우 한 중학생의 하루를 관찰한 결과 103번의 욕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여고생 4명의 대화를 약 45분 동안 관찰한 결과 15종류의 욕이 있었고 욕한 횟수는 무려 248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출처는 마찬가지로 KBS 스페셜 <10대 욕에 중독되다>입니다.

③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찬성 측에서도 말씀 하셨듯이 현재 우리나라 초, 중, 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무분별한 욕사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의미도

모든 채 습관처럼 욕에 중독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과연 욕을 공론화함으로써 한 순간에 쉽게 멈출 수 있을까요? 욕에 중독되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공론화로 인해 욕에 더 쉽게 노출되고, 이로 인해 더 불쾌한 상황이 많아 질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욕을 공론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성급한 시도라고 여겨지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④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조사

찬성 측 :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욕을 사용하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반대 측 : 예, 그렇습니다.

찬성 측 : 그렇다면, 욕을 공론화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현실을 더 문제가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반대 측 : 욕을 공론화 하면 이러한 현실에 큰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찬성 측 : 예, 알겠습니다.

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오늘날 우리는 욕이 일상화된 언어문화를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욕의 공론화는 불가피합니다. 인터넷에서 발생하여 널리 퍼지는 욕설은 이를 걸러 낼 수 있는 필터링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규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욕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파급력이 큰 만큼 이를 이용하여 욕설 사용을 줄이자는 정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공론화의 다른 방법은 국어 순화 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욕의 어원을 교육하여 욕을 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7%가 욕을 사용하고 있지만 72.2%가 욕의 뜻도 모르고 사용하며 욕의 어원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욕의 어

원에 대해 설명하고 나니 욕사용을 자제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습니다.

⑥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조사

반대 측 : 욕의 어원에 대해 설명하고 나니 욕에 대한 거부감과 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초등학교만 해당한다는 말인가요?

찬성 측 : 초등학교보다는 어느 정도 알겠죠. 하지만 초, 중, 고등학교 대부분이 ‘존나’라든지 자주 쓰는 욕의 어원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반대 측 : 또, 욕을 공론화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드셨는데, 이는 욕을 공론화하는 방안이 아니라 욕사용을 줄이는 방안 아닌가요?

찬성 측 : 욕을 공론화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욕사용을 줄이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맥락에서 생각했습니다.

⑦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욕을 공론화 한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욕에 대해 공론화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종 대중 매체, 예컨대 텔레비전, 인터넷 등에서 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결론도 얻을 수 없고,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이 양보하여, 욕을 공론화한 후에 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주지시킬 것입니까? 욕을 사용하면 징역살이를 하게 하거나 벌금이라도 물릴 것입니까? 그 누구에게도 개인의 언어생활을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⑧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조사

찬성 측 : 공론화를 통해 어떠한 결론도 얻을 수 없다는 내용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반대 측 : 욕을 공론화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욕을 자제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이는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찬성 측 : 욕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반대 측 : 예, 인정합니다.

찬성 측 : 욕을 듣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요? 이를 담배 문제로 환원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담배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욕사용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 측 : 하지만 담배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피해를 주지만 욕은 그 피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욕과 담배의 개인의 권리 침해 문제에는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⑨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박

요즘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의 경우, 이미 현재 채팅창에 욕설을 금지어로 정해놓고, 입력할 수 없게 한 사이트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욕설이 입력이 안 되므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거나, 숫자들과 조합하여 입력하고 있습니다.

욕 공론화는 이처럼 해결책 없는 공론을 함으로써 본질을 해결 못하는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욕 공론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입니다.

⑩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박

공론화 자체에 대한 실효성 의문, 즉 투자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이라는 것은 직접 실행해 보지 않으면 정확히 그 영향력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사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면 우리말 바르게 쓰기 운동도 당장 없어져야 할 것 입니다. 수치로는 계산할 수 없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들은 실효성에 관계없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⑪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

욕이 공론화되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미 욕의 폐해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알면서도 안 되고 있는 사실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는 일은, 투자 대비 효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논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쟁점이 있고, 이미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논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욕 문제는 공론화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주제이며 이를 공론화하여 나온 결론은 엉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이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⑫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공론화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의 반박에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욕 공론화가 되기 전에 이미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욕사용 문제를 제기하고 정화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욕의 폐해를 막으려는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욕을 공론화시키기 전에는 이러한 노력은 국지적인 방안일 뿐입니다. 저희의 입장은 이런 욕의 문제를 공론화 시켜서 현재 비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안들을 대폭 확대시켜 효율적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